

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
전북발전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· **내용문의** : 농업농촌식품연구부 황영모 연구위원
(063-280-7132, 010-2389-5067)

· **담당실장** : 연구실장 김보국 연구위원
(063-280-7161)

보도시점:2016년 11월 22일(화) 12시부터

농업은 공공재...농업의 다원적 기능 도민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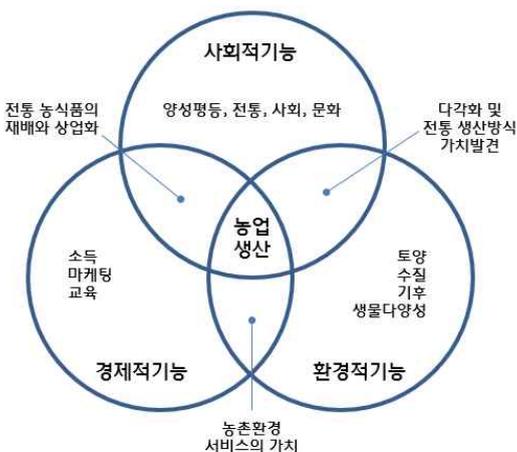
도민 71%,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갈수록 중요해져
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기금 조성에 61% 동의

전북연, 농업·농촌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정책브리프로 제시

- 쌀값 하락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·농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'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따른 공공재적 효과를 고려해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'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22일 정책브리프(통권 제11호) '농업은 공공재, 농업·농촌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민인식'을 통해 다원적 기능의 의미와 농업·농촌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민인식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.
- 농업은 농산물 생산 외에 시장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다원적이고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데, 이것이 이른바 '농업의 다원적 기능'이다.
- 농업은 '식량안보 기능, 환경보전 기능,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기능, 지역사회 유지와 사회경제적 기능' 등 다양한 외부적 효과와 기능을 생산하여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.
-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다른 부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기 어렵고, 만일 대체하고자 한다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업·농촌을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.

- 황영모 박사(농업농촌식품연구부 연구위원)는 ‘농업·농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전북도민 의식조사’ 결과를 분석하여 내용을 제시하였다.
- 첫째, ‘국가경제에서 농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’에 도민의 65.0%가 동의하였고, ‘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’에는 61.3%가 지지하는 의견을 나타내었다.
- 둘째, ‘농업의 다원적 기능 주요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’는 도민은 29.1%로 낮았지만, ‘다원적 기능의 공익적 가치’에 52.3%가 동의하고, ‘다원적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’이라고 71.4%가 내다봤다.
- 셋째, 공공재로서 ‘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재원을 신설’하자는 의견에 61.8%가 찬성하였고, ‘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담당자(농민·생산조직)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’에 58.6%가 동의하였다.
- 넷째, 농업의 ‘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’한다고 했을 때 도민의 73.8%는 납부할 의향이 있었고, 납부의향이 전혀 없는 비중은 26.2%로 조사되었다.
- 다섯째,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는 전라북도에서 공공재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우호적인 만큼, 정책지원의 사회적 근거를 유지해 나가면서 농업·농촌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.

[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주요영역]



[농업의 다원적 기능 이해정도와 가치인식]

